

農產物 輸入開放이 濟州經濟에 미치는 效果分析

金 泰 保^{**}

I. 序

地域經濟는 國民經濟를 형성하는 地理的 分割單位로서의 空間經濟이다.¹⁾ 따라서 지역경제의 개발은 국민경제발전상의 效率性和 地域間 所得 및 福祉의 衡平性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²⁾ 즉 국민경제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國土空間上의 여러지역에 살고 있는 각 地域住民들에게 所得과 그에 따른 福祉가 고루 나누어 질 수 있는 방향에서 地域經濟開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濟州道는 1960년대 초 「濟州道 建設綜合計劃」을 수립하면서 地域開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圖上計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 觀光主導型 地域開發을 목표로 「濟州道 觀光綜合開發計劃」이 추진되었는데 이 계획은 제주도에 觀光地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觀光產業을 基本產業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제주경제는 1970~1987년의 기간 동안에 年平均 12.1%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특히 觀光收入은 濟州地域總生産(GRP)의 3.2%에서 15.4%로 감귤수입은 4.2%에서 12.2%로 각각 증대하여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이 되고 있다.

* 이 논문은 漢拏日報 창간 1주년기념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임

** 經常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1) Richardson H. *Regional Economics. : Location Theory, Urban Structure and Regional Chang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pp.26-27.

2) Stillwell. FJB. *Regional Economic Policy*, New York, Macmillan 1973. pp.38-42.

그러나 제주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農業이 최근 農産物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直·間接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제주농업은 그동안 獨占的 위치를 누리왔던 감귤 등 亞熱帶性 과일의 對陸地部 수출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제주농업은 한마디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濟州經濟 成長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온 제주농업의 위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예견되는 濟州地域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분석하는데 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濟州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한 分析은 제주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資料의 制約으로 分析上的 限界가 있으나 濟州地域産業關聯模型을 구성하여 分析을 시도한다.

II. 濟州經濟에 있어서 農業의 位相과 役割

1. 地域經濟의 概況과 構造의 特性

濟州道는 제1차 및 제2차 國土綜合開發計劃上的 1개 圈域인 동시에 10大 觀光圈의 하나로 한반도의 西南端인 남해해상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島嶼로서 동경 $125^{\circ} 1' \sim 126^{\circ} 58'$, 북위 $33^{\circ} 10' \sim 33^{\circ} 51'$ 에 걸쳐 있으며 총면적은 $1,819\text{km}^2$ 로 남한면적 $98,477\text{km}^2$ 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인구는 1988년 12월 현재 50만 9천명으로서 전국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3년에서 1988년간 연평균 약 2.1% 증가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1.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밀도는 전국평균 $397\text{인}/\text{km}^2$ 보다 낮은 $260\text{인}/\text{km}^2$ 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經濟活動人口는 (표1)에서 보면 1973년 171천명이던 것이 1988년 211천명으로 약 12% 증가에 그쳤는데 이를 산업별 구성비로 보면 1973년의 경우 농림수산업이 81.3%, 광공업이 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15.2%이던 것이 1988년 현재 농림수산업이 54.0%, 광공업이 3.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42.3%로 나타나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地域總生産(GRP)은 1973년의 267.7억원이던 것이 1988년 11,901억원으로 약 44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산업별 구성비로 보면(표2) 1973년의 경우 농림수산업이 51.8%, 광공업이 7.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40.5%이던 것이 1988년 현재 농림수산업이 35.1%, 광공업이 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61.6%로 나타나 농림수산업과 광공업이 비중이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地域總生産(GRP)의 成長率을 산업별로 보더라도(표3) 1961~1970년간의 年平均成長率은

〈表1〉 經濟活動人口 및 產業別 就業構造

(單位: 千人, %)

年 度	經濟活動人口	全 產 業	農林水産業	鎭 工 業	社會開發資本 및 其他 서비스
1973	172	171	139(81.3)	6(3.5)	26(15.2)
1976	180	180	143(79.4)	6(3.4)	31(17.2)
1979	180	180	125(69.9)	6(3.4)	35(27.2)
1982	191	191	134(70.1)	6(3.1)	48(26.8)
1985	190	190	114(60.1)	6(3.4)	69(36.5)
1988	208	208	112(54.0)	6(3.3)	89(42.7)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表2〉 地域住民 總生産 (GRP)

(單位: 億 원, %)

年 度	農 林 漁 業	鎭 工 業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地域住民總生産
1973	51.8	7.7	40.5	516(100)
1976	50.1	2.5	47.4	1,197(100)
1979	41.9	3.9	54.2	2,966(100)
1982	35	4.2	60.5	4,895(100)
1985	42	3.4	54.6	7,560(100)
1988	35.1	3.3	61.6	11,901(100)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表3〉 產業別 成長

(單位: %)

區 分	1961~1970年平均	1971~1980年平均	1981~1988年平均
農 林 水 産 業	6.5(%)	14.5(%)	8.5
鎭 工 業	9.6	15.1	7.6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業	13.3	21.8	16.1
總 G R P	9.0	16.4	12.1

자료: 제주도, 제주도 경제지표

4 社會發展研究

9.0%인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과 광공업이 각각 13.3%, 9.6%로서 높은 성장을 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6.5%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1971~1980년의 경우는 GRP의 성장률이 16.4%로서 전국평균 성장률 7.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1981~1988간의 성장률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地域經濟의 成長은 국민경제가 수요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능력, 그것들이 他地域에 대하여 比較優位의 입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증진된다.³⁾ 地域의 경제성장은 지역의 基本産業의 성장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으로 基本産業比重이 상대적으로 補助産業의 비중보다 클때 그 지역은 성장하며 반대인 경우 침체한다.⁴⁾ 따라서 地域經濟의 地域潛在力은 他地域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産業部門과 이의 開發戰略을 찾아냄과 동시에 불리한 他部門은 어떻게 地域內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地域의 自然的 및 社會經濟的 諸要件의 검토에서 찾아야 한다.

제주도의 農林水産業은 제주도경제의 基盤을 이루어 왔으나 本道 地域經濟에 있어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農業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는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는데 총경지면적은 1988년 말 현재 54,757ha로서 그중 98%가 田이고 좁은 겨우 2%에 불과하여 田作形態를 띄고 있다. 그리고 가구당 경지면적은 110.6 정보로서 零細性を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農林水産業은 제주도경제의 基盤을 이루어 왔으나 제주도 地域經濟에 있어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農業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는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는데 총경지면적은 1988년 말 현재 54,757ha로서 그중 98%가 田이고 좁은 겨우 2%에 불과하여 田作形態를 띄고 있다. 그리고 가구당 경지면적은 110.6 정보로서 零細性を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업은 6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식량작물위주의 농업이었으나 60년대이후 감귤, 특용작물, 기타 채소재배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道民所得 增大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畜産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한라산 주변의 廣野가 목야지로 되어 있어 옛부터 말(馬)의 생산지로 유명했었다. 근래에 와서는 소가 주요 축산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축산물과동에 의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제주도의 水産業은 대부분 농업을 겸하고 있는데 1988년말 현재 수산업인구는 9,203가구에 36,874이고 어선수는 총 2,018척이 되나 5톤이하인 어선이 68.6%나 되고 있어 零細漁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漁獲高도 40.656%에 불과하다. (표4)

3) North D. C, "Location Theor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3, 1955, pp. 214-24.

4) Tiebout C. M "Expor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4, 1957, pp. 128-132.

〈表4〉 漁船 勢力數

區分 年 度	總 隻 數	動 力 船	無 動 力 船	總 屯 數	漁 獲 高
1970	248	89	155	1,006	
1975	954	531	413	5,074	44,500
1980	1,338	1,134	204	7,281	39,564
1982	1,541	1,259	282	8,077	29,713
1985	1,777	1,546	231	9,856	44,190
1988	2,018	1,784	234	13,931	40,656

자료 : 제주도 통계연보

제주도의 鑛工業은 극히 零細하다. 본도의 資源分布를 보면 鑛産資源이 전무한 상태이고 水資源, 動力資源은 빈약한 상태이며 자본 및 기술의 낙후, 판매시장의 협소, 원료 및 생산제품 수송 비용의 과다부담 등 불리한 工業與件으로 인하여 제주도 제조업의 경우 發展基盤을 구축하지 못한채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제조업체수는 1988년말 현재 200인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1개이며 5~9개를 고용하는 업체가 전 제조업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업종은 식음료제조업으로 전제조업의 44.4%인 110개업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주산물인 감귤, 고구마, 축산물, 해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원료구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 (표5)

〈表5〉 主要製造業體의 數

區 分	年 度			
	1960	1970	1980	1988
飲 食 料 品 및 담 배 製 造 業	56	107	108	110
섬 유 衣 服 및 가 죽 工 業	20	41	23	31
製 材 業 및 家 具 製 造 業	8	20	18	25
종 이, 종 이 製 品 및 印 刷 出 版 業	8	13	15	38
金 屬 製 品 機 械 및 裝 備 製 造 業	23	19	14	20
其 他	41	43	16	15
計	166	242	194	249

資料 : 韓國銀行 濟州支店

음식숙박업, 교통운수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관광산업부문이 제주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본도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1960년대에 있어서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1970년대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제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성장은 풍부한 자연경관, 무공해, 특이한 민속, 아열대성 기후 등 관광입지조건상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우수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濟州農業 성장추이와 現況

제주도의 農業은 비옥한 평탄지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어업을 겸한 발농사가 발달되어 왔다. 農耕地面積은 제주도 총면적 187,000ha 가운데 26.0%인 54,757ha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家口當 면적은 1987년 현재 1,106ha로 전국평균 1.09ha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高溫多濕, 多雨 및 비바람이 많고 土質上으로 火山災 토양과 암반, 돌이 많아 기계화가 어려워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穀物類 生産은 1961년에는 전체작물별 재배면적의 94.1%가 차지하였으나 1976년 65.1%, 1987년 43.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생산량은 81,665%으로서 전국총생산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미곡의 재배면적은 계속 줄어들었으며 생산량 역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맥류의 경우 대맥, 나맥은 1970년대이후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맥주맥 재배면적은 1970년대말부터 유채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8,964ha에 이르고 있으며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6)

야채 및 과일류는 서류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1988년에는 재배면적 5,073ha에 13,455%에 불과하게 되었다. 야채류 생산의 경우는 경작면적이 1965년 1,219ha에서 1987년 7,475ha로 6.5배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989년 현재 177,754%으로 그중 무우 26,225%, 배추 32,711%, 양배추 26,369%, 마늘 5,975%, 수박 5,975%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7)

과일류 중 감귤은 제주도 농가의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제작물로서 1961년 재배면적이 275ha에 불과하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는 17,829ha에 이르렀다. (표8) 그러나 이 재배면적중 일부가 바나나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감소하였는데 1988년 말 현재 생산량은 412,660%이며 연간총수익은 2,105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타 과일류 생산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단감등이 있다. 그 중 바나나 생산은 육지부보다 제주도의 유리한 입지조건과 함께 시설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경제작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해마다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왔다.

工藝作物은 유채, 참깨, 들깨 등이 생산되는데 이들 가운데 유채와 참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表6〉 濟州經濟 穀物類 生産의 現況

(單位 : ha, %)

區 分		年 度 別			
		1961	1976	1985	1987
합 계	면생	63,180	44,928	31,024	32,636
	산적량	117,702	331,373	195,683	81,665
미 곡	면생	3,232	2,441	1,374	1,205
	산적량	3,590	4,730	4,161	3,270
맥 류	면생	29,288	16,887	14,075	11,124
	산적량	29,714	42,264	41,406	30,154
잡 곡	면생	19,332	3,086	1,040	2,728
	산적량	11,320	4,457	1,298	2,331
두 류	면생	3,928	10,959	8,608	12,270
	산적량	4,455	10,651	9,405	13,243
기 타	면생	7,400	11,555	5,927	5,309
	산적량	68,623	269,271	139,368	32,667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表7〉 濟州經濟 野菜類 生産의 現況

(單位 : ha, %)

區 分		年 度 別			
		1961	1976	1985	1987
합 계	면생	1,219	1,546	4,667	7,475
	산적량	21,906	26,086	133,376	177,755
무 우	면생	228	438	357	541
	산적량	4,646	8,077	15,884	26,225
배 추	면생	366	291	556	575
	산적량	6,132	5,040	29,413	32,711
양 배 추	면생	-	117	296	622
	산적량	-	2,884	11,783	26,369
마 늘	면생	104	175	1,123	2,526
	산적량	1,255	1,370	5,426	5,975
수 박	면생	67	66	305	5,975
	산적량	1,631	1,370	5,426	5,975
기 타	면생	454	457	4,403	2,702
	산적량	8,234	7,412	60,687	62,078

資料 : 濟州道, 統計年報

8 社會發展研究

유채는 1960년대 이후 겨울철 경제작물로 재배되기 시작한 이래 그 재배면적이 급증하여 1976년에는 12,795ha에 달하였다. 그후 외국산 대두가 수입됨에 따라 유채가격이 급락하면서 1988년에는 5,215ha로 다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참깨재배는 1970년대에 들어와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는 6,673ha에 이르렀고 생산량도 4,117%으로 증산되어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濟州道 畜産業은 지리적, 기후적, 특수성으로 타지역에 비해 경영방식이나 가축의 종류가 특이하다. 제주도의 中山間地域은 경사가 완만하고 광활한 5,800ha의 초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온이 온난하고 강우량이 많아 축산업에 유리한 자연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가축의 현황을 보면(표9) 한우는 종래 牛肉의 공급 뿐만 아니라 役用으로 사용하였으나 영농기계의 확대보급에

〈表8〉 濟州經濟 柑橘生産의 現況

(單: ha, %)

區分 年度別	面 積	生 産 性	粗 收 入 (백만원)	流 通 處 理 內 容		
				生 果 搬 出	加 工 處 理	其 他 消 費
1977	11,710	115,500	25,870	97,875	8,167	9,348
1979	12,909	172,150	55,088	151,701	11,859	8,580
1981	14,764	247,780	78,397	205,922	22,740	19,118
1983	16,975	345,900	74,043	295,311	33,059	17,530
1985	16,969	394,300	124,189	313,041	65,659	15,600
1987	17,656	464,391	166,818	372,581	78,310	13,500
1988	17,829	412,660	210,579	329,694	64,374	18,592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表9〉 濟州經濟 家畜의 現況

(單位: 千頭)

家 畜 年 度	韓 牛	肉 牛	것 소	돼 지	계 주 말	닭
1961	497	7	-	504	138	991
1966	758	9	-	704	193	1,594
1971	384	11	-	579	76	1,751
1976	339	95	2	716	53	1,911
1981	274	-	9	471	20	4,280
1985	571	-	16	722	16	5,505
1987	419	-	21	995	14	5,905
1988	332	-	26	1,091	15	6,603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따라 점차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왔는데 1980년대초 축산물과동에 의하여 더욱 격감되었다. 1988년 말 현재 한우는 33,254마리이고, 젖소는 1976년 처음 낙농업을 시작한 이래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1988년 말 현재 2,725마리에 달하고 있다. 도내 牧場現況은 1988년 말 현재 기업목장 43개소, 관영목장 4개소, 부락공동목장 85개소가 있으며, 21,277ha의 초지를 이미 조성하였고, 금년까지 23,151ha를 더 조성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주농업의 성장추이를 보면 1960년대에 들어와 유채, 고구마, 副業畜産 등의 사유 및 재배가 확대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收益性이 높으며 生産性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감귤, 겨울채소, 기업축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構造的 變化를 가져왔는데, 1980년대에 資本集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인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시설재배업 생산이 확대되어 왔다.

3. 濟州經濟 成長에 대한 農業의 役割

제주경제에서 農業은 生産額, 附加價值雇傭·輸出 등의 면에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⁵⁾ 제주경제의 地域內 總產出額은 1986년을 기준으로 18,717억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농업의 生産額은 40,894억원으로 지역전체 생산량의 22.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별로 볼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附加價值 면에서도 29,772억원으로서 지역부가가치 총액의 23.1%를 차지함으로써 비중면에서도 지역경제내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6년 濟州地域産業聯關表를 통하여 농업의 수급구조를 보면 농업의 총산출액 중 9.9%인 408.6억원이 중간수요로 90.1%인 3,680.9억원이 최종수요로 배분되어지고 있다. 중간투입율을 보면 27%로서 현저히 낮은 중간수요율과 종합해보면 제주농업은 最終需要的 原始産業型의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後方聯關效果를 나타내는 影響力係數와 前方聯關效果를 나타내는 感應度係數로 보면 각각 0.9814, 0.9821로서 모두 1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은 산출, 고용, 소득의 승수효과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각각 1.2929, 1.1300, 1.2195로 나타나고 있다.

감귤 등 아열대성 과일류를 중심으로 한 농업의 성장에 의해 제주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이룩하였다. 제주도의 온난한 亞熱帶性 기후조건은 특히 과일類 生産에 유리하여 제주도가 比較優位를 갖게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 농업은 對 육지부와의 관계에서 獨占的 위치를 누렸던 감귤류의 성장에 의해 제주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왔다.

5) 金泰保, 「濟州經濟의 構造的 特性과 成長展望—地域産業聯關分析을 중심으로—」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0, pp. 71-105.

〈表10〉濟州經濟產業別產出成長要因(1980~1991)

(單位: %, 백만원)

產業別	要 因		地域別需要增大			輸出增大			輸入代替			技術變化			地域產出增加		
	期間別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농	업	-4.9	31.8	2.1	114.7	147.2	108.7	-1.1	-21.2	-4.5	-8.7	-57.8	-6.2	89280	36596	125877
임	업	-20.3	-38.7	-13.3	54.6	60.9	49.7	91.7	61.4	96.6	25.9	16.4	-32.9	21992	-4491	17510	
어	업	0.1	5.3	2.5	100.2	96.9	98.1	-0.2	-0.9	-0.5	-0.2	-1.3	-0.1	72865	64556	137422	
광	업	166.3	-12.2	156.4	-88.6	13.9	-77.0	-69.8	-2.1	-71.8	92.0	100.4	92.3	-343	-79	-423	
식·음료	품 및 연초	99.0	-870.8	132.2	9.3	-100.2	13.0	-8.8	960.7	-44.7	0.5	110.4	0.5	63173	-2678	60494	
섬	유 및 가	-12.8	-6.7	-10.2	61.5	-7.6	24.0	13.7	101.8	68.5	37.6	12.5	17.5	-9265	-13999	-23264	
제	채 및 목	30.8	-63.1	12.9	36.8	-32.4	24.2	11.1	176.1	45.0	21.3	19.5	17.8	-13380	-4576	-17956	
종	이·인쇄	129.7	119.0	208.1	23.4	39.0	48.8	-81.3	-159.9	-185.4	28.2	101.9	28.5	-1361	-4547	-5929	
섬	유 화 학	90.5	-21.4	55.1	-44.5	-10.7	-70.0	-92.3	27.9	-43.9	146.2	104.2	158.5	-1168	-6490	-7578	
비	금 속 광	-172.5	-105.9	-189.3	231.9	171.6	235.7	48.1	10.9	64.7	-7.4	23.5	-11.0	13051	-5303	7748	
금	속 1차·	67.3	-51.4	-30.7	-111.3	-25.3	-59.2	-2.5	146.4	145.3	146.4	30.3	44.7	-2917	-29657	-32575	
진	력·가	60.7	5.1	10.6	21.2	92.6	88.9	-0.8	-1.3	-1.3	18.9	3.7	1.8	11656	25146	36802	
진	소	220.8	35.9	451.6	-114.3	54.4	-345.6	0.2	-5.8	9.3	-6.7	15.5	-15.3	-55167	20041	-35126	
도	· 소	79.4	79.8	84.0	16.7	18.6	18.6	-0.6	-8.9	-5.0	4.4	10.5	2.3	32385	32018	64404	
관	광	37.84	3.2	15.0	65.6	96.5	85.5	-2.0	0.9	-0.1	-1.4	-0.6	-0.4	185623	96223	281846	
운	수·보	31.6	46.0	43.6	58.7	42.5	54.4	-0.7	-4.2	-2.9	10.4	15.7	5.0	33106	45817	78923	
금	용·보	67.6	38.2	63.7	20.8	20.4	25.0	-14.4	6.9	-4.1	26.1	34.4	15.3	68630	66267	134898	
사	회 서	75.9	351.3	163.6	10.7	27.3	17.7	-1.6	-397.8	-97.0	14.9	119.2	15.6	48626	-21800	28826	

註: 濟州地域産業聯關 機型에 의해 推計

(表10)에 의하면 제주경제의 산출성장 요인을 地域内需要, 輸出, 輸入代替 및 技術變化로 분류하여⁶⁾ 산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제주농업은 1980~1986년 기간동안 제주경제의 産出成長에 기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地域内需要 증가보다 域外輸出 증가의 요인이 成長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86~1991년 기간 동안의 제주농업의 産出成長에서도 역시 域外輸出이 고용성장요인을 주요 산업부문별로 보면(표11) 제주경제의 기반산업인 관광, 어업, 운수, 보관 및 통신부문의 경우 지역내수요증대보다도 수출증대가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농업의 경우는 1980~1986년 기간 중에 6,754명이나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요인이 수출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경제의 성장에 주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외의 관광, 어업, 운수, 보관 및 통신업도 1980~1986년, 1986~1991년 기간 모두 地域内 需要增大效果보다 輸出增大效果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輸出增大가 이들 산업들의 주된 성장요인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들 주요산업들은 당분간 地域外需要에 기초하여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농업이 輸出增大效果에 의한 成長依存度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農産物 輸入開放이 실행되는 경우 濟州農業의 성장에 크나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農業보다 觀光産業의 先行的 急成長으로 인하여 1980~1986년과 1986~1991년 간의 産業構造의 변화추이를 보면(表12) 1980년 1차:2차:3차 산업의 구성비가 41.4%:14.2%:44.4%에서 1986년 31.2%:11.5%:56.3%로, 1991년 29.2%:5.9%:64.9%로 1차산업과 2차산업이 감소한 반면 제3차산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주경제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農業이 農産物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제1차 산업의 비중이 격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현상은 雇傭構造 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과 1986년을 비교하여 보면 제1차산업과 제2차산업이 각각 68.5%에서 50.4%, 4.9%에서 2.8%로 감소한 반면, 제3차산업은 26.6%에서 46.8%로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1991년까지의 고용구조의 변화추이를 전망하여 보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13)

6) Chenery-Shishido-Watanabe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begin{aligned} \Delta X &= X_{t+1} - X_t = (I - A_{t+1})^{-1} (D_{t+1} + E_{t+1} - M_{t+1}) - (I - A_t)^{-1} (D_t + I_t - M_t) \\ &= (I - A_{t+1})^{-1} (D_{t+1} - D_t) + (I - A_{t+1})^{-1} (E_{t+1} - E_t) - (I - A_{t+1})^{-1} (M_{t+1} - M_t) - (I - A_{t+1})^{-1} (D_t + I_t - M_t) \\ &= (I - A_{t+1})^{-1} \Delta D + (I - A_{t+1})^{-1} \Delta E - (I - A_{t+1})^{-1} \Delta M - (I - A_{t+1})^{-1} (A_{t+1} - A_t) X_t \end{aligned}$$

Chenery HB, S Shishido and T Watanabe "Patterns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ics Vol. 30, Jan. 1962. pp.98-139.

〈表11〉 濟州經濟產業別 雇傭成長要因(1980~1991)

(單位：%, 人)

產業別	要因期間別		地域內需要		輸出增大		輸入代替		技術變化		雇傭係數		雇傭成長					
	80-86	86-91	80-91	86-91	80-86	86-91	80-86	86-91	80-86	86-91	80-86	86-91	80-86	86-91	80-91			
농업	33.3	36.0	13.9	-774.4	166.8	716.2	7.3	-24.0	-30.0	58.4	-65.5	-41.0	775.4	-13.3	-559.0	-6745	8657	1912
임업	-20.7	-37.2	-13.6	55.5	58.6	50.7	93.0	59.0	98.5	-26.3	15.8	-33.6	-1.5	3.8	-2.0	5881	-1256	4634
어업	0.1	5.4	2.5	100.9	98.5	98.8	-0.2	-1.0	-0.5	-0.2	-1.3	-0.1	-0.7	-1.6	-0.7	6278	5467	11745
광업	84.6	-12.1	78.9	-45.0	13.8	-38.8	-35.5	-2.1	-36.2	46.8	100.0	46.6	49.2	0.4	49.6	-116	-3	-119
식·음료품 및 연초	-539.6	-687.1	-685.3	-50.8	-79.1	-98.1	48.0	758.7	233.7	-2.7	87.2	-2.6	645.1	21.4	622.3	-501	-70	-571
섬유 및 가죽	-8.6	-6.7	-8.1	40.5	-7.5	19.3	9.0	101.0	54.7	24.8	12.4	14.0	34.1	0.8	20.0	-1004	-843	-1847
제조 및 목재	30.0	-62.5	12.6	35.8	-32.0	23.5	10.9	174.2	43.7	20.8	19.3	17.3	2.6	1.1	2.9	-751	-249	-1000
종이·인쇄 및 출판	83.3	120.6	300.4	33.0	39.5	70.5	-114.8	-162.0	-267.6	39.8	103.2	41.2	-41.3	-1.3	-44.4	-180	-178	-358
식품	97.0	-21.3	59.3	-47.7	-10.7	-75.3	-98.9	27.8	-47.6	156.7	104.1	170.8	-7.2	0.1	-7.6	30	-140	-110
비금속 광물	-202.2	-100.3	-248.1	271.7	162.4	308.9	56.3	10.3	94.7	-8.7	22.2	-14.5	-17.2	5.3	-31.1	436	-200	235
금속 1차·금속 및 기계	31.6	-51.0	-22.7	-52.3	-25.1	-43.6	-1.2	145.3	107.1	68.8	30.1	32.9	53.0	0.8	26.2	-437	-931	-1368
전력·가스·수도	144.3	5.1	11.2	50.3	92.7	94.3	-2.0	-1.3	-1.4	45.0	3.7	1.9	-137.6	-0.2	-6.1	-45	2690	2645
건설	226.8	36.7	484.8	-117.4	55.6	-348.0	0.2	-5.9	9.4	-6.9	15.9	-15.4	-2.7	-2.2	-0.7	-3159	1126	-2033
도·소매	114.0	81.9	101.1	24.0	19.1	22.4	-0.9	-9.1	-6.0	6.3	10.8	2.8	-43.5	-2.7	-20.3	7447	6074	13521
관광	29.5	3.4	15.0	51.2	101.5	85.9	-1.5	0.9	-0.1	-1.1	-0.7	-0.4	22.0	-5.1	-0.4	26197	15145	41342
운수·보관 및 통신	374.9	46.8	79.3	697.9	43.3	99.1	-7.8	-4.3	-5.3	123.1	16.0	9.0	-10880	-1.8	-82.1	-790	1955	1165
금융·보험 및 부동산	68.0	38.4	64.1	20.9	20.5	25.2	-14.5	7.0	-4.1	26.2	34.6	15.3	-0.6	-0.5	-0.5	4147	3975	8122
사회 서비스 및 기타	50.0	-125.4	148.8	7.0	9.7	16.1	-1.0	142.3	-88.2	9.8	-42.6	14.2	34.2	9.1	9.1	12846	-3104	9741

〈表12〉 産出額 基準 濟州經濟 産業構造變化의 推移

(單位: %)

年度別		1980	1986	1991	1980~1986	1986~1991
産業別						
농	업	36.0	22.0	19.0	-14.0	-3.0
임	업	1.8	1.3	0.8	-0.5	-0.5
어	업	3.6	7.9	9.3	4.3	1.4
小	計	4.14	31.2	29.2	-10.2	-2.0
광	업	0.6	0.05	0.04	-0.55	-0.01
식·음료	품 및 연초	9.3	5.6	4.2	-3.7	-1.4
섬유	및 가죽	2.3	1.0	0.1	-1.3	-0.9
저재	및 목재	0.4	0.3	0.03	-0.1	-0.27
종이·인쇄	및 출판	0.4	0.7	0.3	0.3	-0.4
섬유	화학	0.5	0.6	0.2	0.1	-0.4
비금속	광물	0.3	1.4	0.9	1.1	-0.5
금속	1차·금속	0.4	1.9	0.1	1.5	-1.8
小	計	14.2	11.5	5.9	-2.7	-5.6
전력·가스·수도		1.2	4.0	5.9	2.8	1.5
건설	업	19.0	5.0	5.4	-14.0	0.4
도소·매	업	6.0	8.4	10.9	2.4	2.5
관	광	4.3	10.8	14.4	6.5	3.6
운수·보관	및 통신	3.7	9.7	9.0	6.0	-0.7
금융·보험	및 부동산	8.3	6.2	8.9	-2.1	2.7
사회	서비스 및 기타	2.0	12.2	8.6	10.2	-3.6
小	計	44.4	56.3	64.9	11.9	6.4
합	計	100.0	100.0	100.0		

註: 1985年 不變價格 基準

〈表13〉 雇傭基準 濟州經濟 產業構造 變化推移

(單位：%)

產業別	年度別					
		1980	1986	1991	1980~1986	1986~1991
농업	업	62.0	42.6	37.4	-19.4	-5.2
임업	업	0.1	2.7	1.7	2.6	-1.0
어업	업	6.4	5.1	6.1	-1.3	-1.0
소계	계	68.5	50.4	45.2	-18.1	-5.2
광업	업	0.09	0.01	0.01	-0.08	0
식·음료품 및 연초		1.4	0.8	0.6	-0.6	-0.2
섬유 및 가죽		1.2	0.4	0.08	-0.8	-0.32
제재 및 목제품		0.6	0.1	0.01	-0.5	-0.09
종이·인쇄 및 출판		0.4	0.1	0.09	-0.3	-0.09
섬유 화학 제품		0.1	0.1	0.03	0	-0.97
비금속 광물 제품		0.3	0.3	0.2	0	-0.1
금속 1차·금속 및 기계		0.8	0.4	0.03	-0.4	-0.37
소계	계	4.9	2.8	1.7	-2.1	-1.1
전력·가스·수도		0.3	0.4	1.2	0	0.9
건설업	업	4.8	2.3	2.2	-2.5	-0.1
도·소매업	업	8.4	9.9	10.2	1.5	0.3
관광	업	5.9	20.1	27.2	14.2	7.1
운수·보관 및 통신		4.6	3.4	3.4	-1.2	0
금융·보험 및 부동산		1.2	2.8	3.7	1.6	0.9
사회서비스 및 기타		1.4	8.0	5.2	6.6	-2.8
소계	계	26.6	46.8	53.1	20.2	6.3
합계	계	100.0	100.0	100.0		

Ⅲ. 農産物 輸入開放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

제주농업은 제주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産出·雇傭 面에서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농업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과일류재배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농산물수입개방이 실시될 때 예견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도록 한다.

1. 果樹栽培業의 地域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제주지역에 감귤이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고려시대부터 조정이 貢納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기록들이 있어 감귤재배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李朝時代에 들어와 果園을 설치하여 감귤재배를 권장하였는데, 특히 中宗 2년(1526년) 李壽童 목사가 進獻을 목적으로 5개 防護所에 果園을 설치하여 집단적으로 재배·관리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⁷⁾

감귤은 亞熱帶性 작물이므로 겨울철 최저기온은 -7°C 이하가 되는 지역에서는 凍死되므로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濟州道는 자연적 입지조건상 地理的으로 남쪽에 위치하여 溫帶 남부형기후에 해양성기후를 가미하여 기온이 대체로 온화한 亞熱帶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감귤재배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柑橘이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00년대 초 日本에서 温州밀감 모목이 들어와 서귀포지역에서의 시험재배에 성공하여 감귤재배의 적지로 判明되면서 부터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정부의 적극적인 증산정책과 지원에 의하여 서귀포 일원에서만 재배되던 감귤이 全道에 걸쳐 재배면적이 확대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감귤이 매우 고가로 판매되어 高所得作物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자 재배면적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재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施設園藝의 도입으로 감귤원을 폐기하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새로운 作物으로 전환하는 構造 變化를 맞았다.

제주도의 감귤재배현황을 耕地利用 面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總耕地利用面積 가운데 과수원

7) 濟州道 「濟州道誌」 1978. pp. 546-8.

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農耕地利用 現況을 보면 맥류, 두류, 서류 등의 식량작물 생산면적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果樹, 채소류의 생산면적이 상당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제주도의 농업도 전통적인 自給自足型 營農에서 都市近郊型 商業農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귤의 生産 現況을 보면 1962년 318ha에 832%이던 것이 1973년 8,409ha에 26,231%으로 증가되었고, 1982년 15,500ha에 323,420%으로, 1988년말 현재 17,829ha에 412,660%으로 증가하여 무려 26년간에 약 1,300배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왔다.

시설원예로서 파인애플과 바나나도 파인애플의 경우 1975년 최초로 4ha에 30%이 생산되던 것이 1988년 222ha에 6,963%으로 증가되었고, 바나나도 1980년대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하여 1982년 2ha에 36%이 생산되던 것이 1988년말 현재 414ha에 18,408%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14)

이와 같은 과수재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과수재배업의 제주경제에 대한 산출·고용·소득승수효과와 산업연관효과는 극히 낮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과수재배업의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987년 반출된 감귤 수입, 즉 域外需要의 증가에 따른 生産·雇傭·所得의 變化를 측정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과수재배업의 수입은 반출된 제주경제에 대한 최종수요로 간주할 수 있다.

〈表14〉 果實類 生産 現況

(單位 : ha, %)

年 度	合 計:		柑 橘		파인애플		바나나		키 위	
	面 積	生産量	面 積	生産量	面 積	生産量	面 積	生産量	面 積	生産量
1962	318	832	318	832	-	-	-	-	-	-
1965	551	1,083	551	1,083	-	-	-	-	-	-
1968	1,471	3,549	1,471	3,549	-	-	-	-	-	-
1972	6,955	11,441	6,955	11,441	-	-	-	-	-	-
1975	10,934	81,135	10,930	81,105	4	30	-	-	-	-
1978	12,111	126,268	12,089	125,950	22	318	-	-	-	-
1980	14,163	188,533	14,094	187,470	69	1,063	-	-	-	-
1982	15,606	326,0838	15,500	323,420	93	2,620	2	36	11	7.8
1985	17,255.3	399,301	16,969	394,300	104.7	3,522	58.2	1,391	123.4	88
1988	18,618	438,262	17,829	412,660	222	6,963	414	18,408	153	231

따라서 과수재배업에 의한 수출수요 ΔE 만큼의 최종수요가 유발될 때 산출·고용·소득면에서의 총 변화는 직접적으로 과수재배업의 생산·고용·소득을 증가시킨은 물론 과수재배업의 후방연 관산업들의 생산·고용·소득을 연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제주경제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1987년 제주도 과수재배업의 域外收入은 1,668.1억원인데 이러한 최종수요가 제주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산출·고용·소득의 효과는(표15)와 같다. 이표에서 보면 과수재배업에 의하여 유발된 제주지역 全産業 總産出額은 2,156.8억원으로 지역총생산액의 11.5%, 지역농업생산액의

(表15) 1987年 柑橘류 亞熱帶性果實 栽培業의 經濟的 波及效果

(單位: 백만원, 人)

産業別	構造	産 出	雇 傭	所 得
농	업	176,525.20	40,508.39	62,743.26
임	업	4,905.38	1,178.19	1,824.90
어	업	140.59	10.81	29.96
광	업	28.65	1.12	3.85
식·음료	품 및 연 초	15,147.03	212.79	1,431.22
섬유	및 가 죽	141.17	7.52	18.23
제조	및 목 제 품	578.13	27.85	86.65
종이·인쇄	및 출 판	1,404.84	48.26	234.68
섬유	화 학 제 품	354.06	99.90	311.19
비금속	광 물 제 품	170.98	5.57	22.91
금속 1차	· 금속 및 기 계	926.25	25.75	87.05
전력·가스	· 수도	723.77	6.93	50.72
건설	업	1,302.28	65.57	357.85
도소매	업	1,863.99	259.86	1,116.62
관광	업	1,411.84	256.30	542.76
운수·보관	및 통 신	2,067.01	81.03	369.66
금융·보험	및 부 동 산	4,347.28	235.79	1,550.52
사회서비스	및 기 타	2,642.72	222.70	1,523.76
計		215,681.28	43,256.33	72,305.79

註: 1986年 地域産業聯關表에 의해 作成

資料: 模型(2-16), (2-18), (2-20)에 의해 推計한 結果

52.7%를 차지하고 있고, 總雇傭은 43,256명으로 地域 全雇傭量의 21.7%, 地域農業雇傭量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유발된 地域所得은 723억원으로 지역전체소득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 등 아열대성과실류의 域外輸出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고용·소득면에서 가장 큰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문은 식음료품제조업, 임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2. 農産物 輸入開放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

그동안 제주경제의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農業이 최근 農産物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直·間接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美國은 1985년 9월 公定무역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新通商政策을 발표한 이후 특히 덤핑, 互惠關稅法 및 1974년 通商法 제30조 적용을 강화하여 農産物·서비스부문에 대한 국내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市場開放壓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은 대체로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⁸⁾ 첫째, 수입급증,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貿易赤字와 財政赤字要因때문이다. 미국의 貿易收支는 1970년대에 적자로 역전되기 시작한 후 198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확대되었다. 또한 재정적자도 1983년부터 연간 1,500억달러를 웃돌면서 계속 확대되어 왔다. 둘째, 多國間 貿易體制 및 協商을 통한 무역문제의 해결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대국모적인 다국간 협상보다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雙務主義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미국은 이른바 相互主義를 對外通商政策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新貿易政策發表 이후 상호주의에 의한 시장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미국의 국내여론을 반영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韓國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 놀라운 交易擴大를 지속시켜 1986년을 黑字의 시대를 여는 전환기로 삼고 1987년에는 76억달러 1988년에는 115억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급증하는 韓國의 무역흑자의 근원은 한국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對韓 무역적자폭이 계속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국산 농산물의 對韓輸出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美國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농업이 농산물수출 감소에 따라 심각한 불황을 겪는 처지에 있다. 이는 美國 농민들의 美議會와 行政府에 대한 政治的 壓力要因이 되어 왔으며, 그 대처방안으로서 미국은 한국·일본·대만 등 주요 對美貿易黑字國들에게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⁹⁾

8) 産業研究院 「台灣의 對美貿易摩擦과 對應」 1989, pp. 32-33.

9) 許信行 「農水産物輸入開放壓力的 背景과 對應戰略」 「農協調査月報」 1987. 8. pp. 10-12.

이러한 開放壓力에 대응하며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미국 등 主要先進諸國의 시장 개방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關稅引下措置를 단행하여 品目基準의 輸入自由化率을 1980년의 68.5%에서 1988년말 95.4%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실질적인 輸入自由化率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72.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입개방조치는 주로 공산품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農水産物의 경우는 1988년말 현재 輸入自由化率이 전체 자유화율 95.4%보다 훨씬 낮은 68.5%에 머무르고 있다. 즉 농산물의 輸入開放은 1983년 살구, 자두 등 19개 품목을 효시로 하여 수입자유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1988년말까지도 수입 제한품목의 83.7%에 해당하는 458개 품목이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서 미국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른 미국등 주요 선진국의 市場開放壓力으로 한국정부는 재차 1989년 4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輸入自由化豫示品目을 고시하며 1989년 82개품목, 1990년 76개 품목, 1991년 85개 품목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예시하였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濟州道에서 생산되고 있는 파인애플, 바나나 등은 1991년 개방키로 예정 고시되었으며, 감귤의 경우는 현재 일당 유보되었으나 1990년대에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제주도 농업의 성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農産物 輸入開放, 곧 農産物輸入自由化란 정의상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물량규제의 철폐를 말하는 바, 이것은 바로 國內價格이 輸入價格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서는 ① 농산물의 生産量變動, ② 품목별 대체소비율 포함한 消費量變化, ③ 농가의 實質所得變動, ④ 農村雇傭變動 등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農産物市場開放의 확대에 따라 감귤 亞熱帶性 과일수입의 감소, 곧 농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감소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은 생산, 고용, 소득면에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아열대성 과일류에 대한 최종수요가 100억원 감소했을 경우 내생부문에서의 생산, 고용,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 (표16)과 같다.

표에서 보면 감귤등의 최종수요가 100억원 감소했을때 지역 全 산업으로 부터의 總生産額의 감소는 129.2억원, 總雇傭의 감소는 2,593명, 總所得의 감소는 43억원이 된다. 아열대성 과일류에 대한 域外輸出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 소득, 고용의 면에서 가장 큰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문은 식음료품제조업, 임업, 도소매업, 금융 및 부동산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IV. 結 論(要約 및 對應戰略)

지금까지 濟州經濟의 실태분석을 통해 제주경제성장애 있어서 농업의 역할과 위치를 파악하고

〈表16〉 감귤수입 100억원 減少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1991)

(單位: 백만원, 人)

區 分 產 業 別	產 出	雇 備	所 得
농 업	10581.0	2428.3	3761.2
임 업	294.1	70.6	109.4
어 업	8.4	0.6	1.8
광 업	1.7	0.1	0.2
식 · 음 료 품 및 연 초	868.5	16.8	75.8
섬 유 및 가 죽	8.5	0.5	1.1
제 재 및 목 제 품	34.7	1.7	5.2
종 이 · 인 쇄 및 출 판	84.2	2.9	14.1
석 유 화 학 제 품	20.7	2.0	28.6
비 금 속 · 광 물 제 품	10.2	3.3	1.4
금 속 1 차 · 금 속 및 기 계	55.5	1.5	5.2
전 력 · 가 스 · 수 도	43.4	0.4	3.0
건 설 업	78.1	4.1	21.5
도 · 소 매 업	111.7	15.6	66.9
관 광	84.6	15.4	32.5
운 수 보 관 및 통 신	123.9	4.9	22.2
금 용 · 보 험 및 부 동 산	260.6	14.1	92.9
사 회 서 비 스 및 기 타	158.4	13.4	91.3
합	12929.1	2593.0	4334.4

농산물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견되는 제주경제에의 파급효과를 전망해 보았다.

濟州農業은 그동안 獨占의 위치를 누리왔던 감귤 등 亞熱帶性 과일의 對 육지부 수출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농업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에 있어서 농업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지적은 어디까지나 對 육지부에 대한 비교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수입이 개방되는 경우 감귤, 바나나 등 과일류와 축산업 등은 비교우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開放化 추세를 감안할 때 농업을 새로운 환경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고 競爭力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영농과학

화를 도모하는 農業構造의 개선 및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開放化時代에 알맞는 濟州農業構造의 조정을 위한 對應戰略은 다음과 같은 長短期的 對應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短期的 대응방안으로 첫째 被害農家補償制度 및 季節關稅制를 도입하도록 한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品目の 경우는 價格差를 보상하여 주는 農産物價格安定基金을 도입토록 한다. 農安基金의 재원은 수출로 혜택을 보게 되는 自動車·電子 등의 수출재원을 일정률로 할당하여 조성토록 한다. 또한 季節關稅制 등도 농가를 보호하는 制度的 장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둘째, 開放豫示品目の 指定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 輸入開放을 수립하는 경우 농가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 地域的으로 생산이 편중된 품목은 가급적 開放計劃에서 유예하는 원칙을 수립토록 한다. 또한, 貿易協商技術을 강화토록 한다.

지금까지 열거된 대응방안은 수입개방에 앞서 시간을 벌어 農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對應力을 키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開放化時代에 알맞는 長期的인 대응방안은 첫째 專業農의 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國際競爭力을 키우는데 있다.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기간농가의 육성과 이를 위한 中長期 低利의 금융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品種改良, 재배기술의 근대화, 인력개발을 통한 高能率生産體制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농업은 遺傳工學 등 첨단기술의 혁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감으로써 開放化時代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개방화에 따른 代替品目を 개발 지정하여 지역적응 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셋째, 제주농업은 제주경제의 선도산업인 관광산업에 의한 파급효과의 연계성(linkage effect)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농업의 개발은 관광산업과 聯關開發해 나가도록 한다.

參 考 文 獻

- 宋丙洛,「韓國經濟의 産業聯關分析」韓國開發研究院, 1973.
- 安忠榮,“韓國産業構造의 長期豫測”「中央大」論文集 제32집, 1984.
- 金子敬生「産業聯關分析の理論と適用」日本評論社, 1972.
- Boisvert R N and Bills N L “A Non-Survey Technique for Regional Input-output Models: Application to River Basin Planning”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Depts of Agricultural Economics, Cornell Univ, 1976.
- Chenery H B Shishido S, and Watanabe T, “Patterns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ics* Vol. 30, 1962.
- Chenery H B and Syrquin M.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Oxford, Oxford Univ Press 1975.
- Chenery H B and Clark P. G, *Interindustry Econom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9.
- Jensen R C “The concept of Accuracy in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Some Comparisons and Implication” *Urban Studiec* Vol. 14, 1977.
- Miernyk. W. H, *The Elements of Input-Output Analysis* New York Random House 1965.
- Moore W I and Peterson J W “Regional Analysis: An Interindustry Model at Uta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37, 1955.
- Morrison W I and Smith D “Non-survey Input-output Technique at the Small Area Level: An Evalu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4, 1974.
- North D C “Location Theory and Regional Economic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3, 1955.
- Pagoulatos C H and Anshel F “Input-output Analysis of Kentucky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12, 1975.
- Richardson H, *Input-output and Regional Econom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2.
- Schaffer W A and Kong, C “Non-survey Techniques for Constructing Regional Interindustry Model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23, 1969.
- Tiebout C M. “Expor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4, 1956.